

2017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

성 명 : ( )

제1차 시험	3 교시 전공 B	8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은 “입장이 다른 상대와 협상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수행한 학생들의 모의 협상이다. 교사의 지도 내용을 <보기>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학생 1(구청 대표): 지난번 협상에서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학교 도서관 개방과 재학생들의 구립 체육 시설 이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도서관 개방 방식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우선 저희는 도서관의 모든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도서 대출 권한과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율학습실 이용 권한을 학생들과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학생 2(학교 대표): 도서 대출 권한은 학생들과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지만 자율학습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학생 1(구청 대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편의 시설로 도서관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책을 빌리기도 하고, 조용히 책을 읽고 싶다는 것이지요. 이 대학 도서관 이용 실태를 알아보니, 시험 기간을 제외하면 학생들이 자율학습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던데 자율학습실을 왜 개방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학생 2(학교 대표): 자율학습실은 학생들이 24시간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가장 어려운 공간입니다. 24시간 이용하는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게 되면 도난 사고가 우려되어서 저희로서는 그 안을 수용하기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구청 대표): 애초에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겠다고 결정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셨지요. 맞나요?

학생 2(학교 대표): 네, 그렇습니다.

학생 1(구청 대표): 그렇다면 그것이 학교 측에서 도서관을 개방하는 목적 중 하나일 텐데, 만약 주민들이 학교가 자율학습실을 개방하지 않아서 책 읽을 공간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한다면 도리어 학교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 2(학교 대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도난 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데 대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자율학습실 개방은 곤란합니다.

학생 1(구청 대표): 지역 내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보다 도난 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한발 양보할 테니 시험 기간을 피해서 자율학습실을 제한적으로 개방해 주시면 어떨까요? [B]

학생 2(학교 대표):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학생 1(구청 대표): 그렇다면 협상을 더 진행하기 어렵겠네요.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보 기>

모두가 이익을 얻는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어떤 점에서 다르고, 왜 다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서로가 원하는 이익이 무엇이나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거나,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입장을 좁히는 데 중요한 방법이다. 또한 서로의 이익을 파악하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보의 크기, 범위, 시기 등을 조절하여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상대에게도 가치 있는 부분을 찾아 맞교환할 수 있다. 한편 협상에서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언급하여 설득하기도 한다.

<작성 방법>

- ‘학생 1’이 [A]에서 사용한 협상 방법을 쓸 것.
- ‘학생 1’이 [B]에서 시도한 협상 방법을 쓰고,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그 협상 방법과 관련하여 서술할 것.

2. 다음은 “질문 생성 전략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라는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한 글이다. <보기 1>은 학생들이 생성한 질문 목록을 교사가 분류한 것이고, <보기 2>는 질문에 대한 교사의 지도 내용이다. <보기 2>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남북한 언어 이질화에 대한 단상**

나는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남북의 언어 이질화를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실상 분단이 반세기쯤 넘기면서 남과 북의 언어는 꽤 달라졌다. 부분적으로 그 차이는 본디부터 있었던 방언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로는 인적 교류가 거의 없었던 두 이질적 체제의 구축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어떤 낱말은 남한과 북한에서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르고, 반대로 형태는 차이 나지만 의미가 같은 경우도 있다. 게다가 북한에서 쓰이는 많은 낱말들이 남쪽에서는 아예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표준어라는 이름의 남쪽 한국어와 문화어라는 이름의 북쪽 한국어가 흔히 지적되듯 ‘이질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질화는 남북의 지식인들(과 일부 정책 결정자)에게 적지 않은 걱정을 끼쳐 왔다. 물론 그 이질화의 책임을 어느 쪽이 더 크게 져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양측의 견해가 달랐다. 남쪽에서는 ‘어학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이 추진한 언어 정책의 과잉을 이질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고, 북쪽에서는 서구 언어에 과도하게 노출된 남쪽의 언어 현실에 그 주된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공세 결에는, 언어의 이질화가 민족의 분열을 고착화할지도 모른다는 순수한 걱정으로 이질화의 물결을 되돌리려는 진지한 모색도 있었다.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통일하기 위한 남과 북의 협상이나 북한·연변의 어휘를 표제어로 포함하는 국어사전의 편찬 작업 같은 것은 그런 모색의 일단이다. 이런 노력들은 남북 언어의 이질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위기의식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남북 언어의 이질화는 많이 과장되었다. 만일 남북 정상 회담이 열린다면 두 정상에게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남한의 독자들이 북한의 텍스트를 대할 때 겪는 것은 다소의 낯설이지 불가해(不可解)가 아니다.

둘째, 만약에 남북의 언어가 정말 이질화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과정이 가속도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전체주의 질서를 채택하지 않는 한, 그 이질화의 흐름을 바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남과 북의 한국어가 소통 가능성의 경계 바깥으로까지 이질화한다면, 그때에는 서로 상대방의 말을 배우면 되는 것이다.

—<보기 1>—

(가)	(나)
① 남북한 언어 이질화 문제를 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글쓴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① 남북한 언어 이질화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닐까?
② 글쓴이는 남북한 언어 이질화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③ 남과 북이 언어 이질화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벌인 사업은 무엇인가?	
④ 글쓴이는 이질화에 대한 흐름을 바꾸는 것이 전체주의 질서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보기 2>—

지난 시간에는 글을 읽으며 질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좋은 질문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질문은 다양한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데, 글의 종류나 읽기의 목적 등에 따라 만들어 보면 더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 만들기가 학습한 대로 잘 수행되었는지 점검해 봅시다.

---



---



---

—<작성 방법>—

- 질문의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가)와 (나)의 차이를 설명할 것.
- 학습 목표의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학생들의 질문 생성에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지도 내용을 포함하여 쓸 것.

3. (가)는 김 교사가 작성한 쓰기 평가 계획이고, (나)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다. (나)의 문제점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평가 계획		
1. 평가 범위	학습 목표	○ 적절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주요 학습 내용	○ 근거의 요건 - 신뢰성 - 타당성 - 공정성
2. 평가 방법		○ 분석적 평가
3. 평가 과제		○ 문항: 적절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쓰시오. ○ 작성 시 유의 사항 - '근거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피드백 내용		○ 글 층위에서 보이는 학생 글의 장단점

(나) 학생 글

우리가 앉아 있는 교실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앉아 계셨던 교실의 풍경과는 많이 다르다. 학급당 인원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형 모니터도 걸려 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학생들이 교과서와 노트만을 책상 위에 펼쳐 놓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필수품이다. 그런데 우리 교실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가는 교실에서 그 편리한 문명의 이기가 금지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교실에서 사용하면 훨씬 더 높은 수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마트폰이 교과서보다 훨씬 더 방대한 정보와 최신의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면서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 이를 보더라도 교과서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수업의 효과가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어떤 교양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역사와 철학에 매우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한 원로 정치인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학생들의 과제 수행이 수월해지고 수업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통해 볼 때, 스마트폰을 학습 상황에서 사용하면 학습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스마트폰의 미덕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 미덕을 모조리 교실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한 장점들을 고려하면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라 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가)의 '1. 평가 범위'와 '3. 평가 과제'를 참조하여, (나)의 3문단과 4문단 각각에서 주장의 근거가 부적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4. 다음을 읽고 <보기>를 고려하여 [그곳]의 의미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앞부분의 줄거리]** 아파트 정기 소독 날을 맞아 집에서 쫓겨 나온 ‘나’는 동네 주민인 ‘그’와 아파트 공원에서 무료하게 잡담을 나눈다. 이후 둘은 무료함을 달랠 요량으로 원숭이를 찾아 구경에 나선다. ‘나’와 ‘그’는 우여곡절 끝에 저녁 어스름에 이르러 서해안 개펄 부근의 어느 황량한 염전 마을에 도착한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도 끝내 원숭이를 찾을 수 없게 되고, 둘은 어느새 상대방이 원숭이로 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그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단순히 겁먹거나 화난 얼굴이 아니었다.

“아니, 그…….”

나는 분명히 ‘그 얼굴이 도대체 뭐요?’ 하고 물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말이 이어지지 않을 뿐이었다. 마약 밀려든 어둠 탓이려니 하려고 해도 헛일이었다. 나는 내가 잘못 보았나 해서 자세히, 그러나 그가 눈치 채지 않도록 살펴보았다. 틀림없었다. 옆에서 본 얼굴도 틀림없었다. 주둥이가 튀어나오고 가장자리가 털로 둘러져 있는 얼굴.

그랬다. 그것은 영락없는 원숭이의 얼굴이었다. 어찌 된 노릇이란 말인가. 나는 악 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짓눌렀다. 무엇인가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한 사람 얼굴이 원숭이 얼굴로 보일 까닭이 없었다. 다리만 후들 후들 떨리는 게 아니라 아래위 이빨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수차 소리처럼 들려왔다. 그는 자기가 원숭이로 변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은 듯 부지런히 걷고만 있었다. 나는 공포 때문에 온몸이 돌처럼 굳어 버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내게 이미 사람으로서의 자유는 사라져 버렸다고 나는 느꼈다. 그러자 조금 앞서 가던 그가 내게로 얼굴을 돌린다고 생각되었다. 아마도 잘 걷고 있는지를 보려는 모양이었으나 나는 그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끔찍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란. 거기 있는 건 원숭이 아니냐!”

나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니, 그렇다면 나도 어느새 원숭이로 변했던 말인가. 그가 그렇게 보았으니 어김없는 사실일 터였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둘 다 원숭이로 변하고 만 것이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사실 아까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린 지금 무슨 마술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둘 다 원숭이가 됐나 봐요.”

나는 그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는 곧이 듣기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아직 원숭이로 변했다고는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나를 원숭이로 보았다고는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다. 단지 그가 원숭이 몰골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내 눈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상대방만을 원숭이로 보고 있는 셈이었다. 해가 중천에 있을 무렵부터 원숭이 타령을 하고 있었던 결과 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 수하를 받고 옆구리에 들어온 총부리 때문이었다. 그것도 아니었다. …… 하지만 그 전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을 원숭이로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만 우리는 어쨌든 함께 [그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빨리 갑시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요. 서둘러야겠어. 이러다간 꼼짝없이…….”

‘꼼짝없이’라는 말 다음에 할 말이 죽는다는 것인지 원숭이로 영영 남게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도 몰랐다.

그는 다시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앞서 나갔다. 다른 말은 더 없었다. 개펄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부지런히 걷기 시작했다. 죽은 땅 위로 바람이 무딘 쇠붙이 소리를 내며 불어왔다. 왔던 길이 맞는지 어떤지도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머릿속까지 어둠이 들어와 딱 차 버린 느낌이었다.

그렇다. 그것도 아니었다. 만약에 우리가 원숭이가 되어야 했던 까닭을 알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저, 뺨을 타고 앉아 광활한 우주 공간을 응시하는 거대한 원숭이뿐일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토록 우리는 어떤 힘에 의해 봉쇄되고 무력하게 되었으며 진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내 원숭이의 몰골은 더욱 볼썽사납게 보이리라 싶었다.

아무 말도 없이 우리는 앞을 향해 걸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구부린 것처럼 나도 덩달아 몸이 앞으로 구부러졌다. 잘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어 될수록 발걸음을 빨리하자니 자연 몸이 뒤뚱 거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둘은 극도의 공포에 쪼그라진 원숭이 얼굴을 하고 어둠 속을 허둥거리며, 그토록 우리가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일상을 향하여 거의 사력을 다해 달려가고 있었다.

- 윤후명, 「원숭이는 없다」

—<보 기>—

윤후명의 작품 중에는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 여행 - 일상으로의 귀환’의 서사 구조를 갖는 이른바 ‘여행담(여로형)’ 소설이 다수 존재한다. 이 작품들의 어떤 인물은 여행의 과정 중 흔히 ‘환각’을 경험한다. 그리고 ‘환각’의 부정적 특성을 경험한 인물들은 일상으로의 귀환 통로를 찾게 되고, 이로부터 ‘환각’의 세계로 진입하기 이전 세계의 가치가 긍정된다.

—<작성 방법>—

○ 서사 구조상 ‘그곳’의 공간적 특성, ‘그곳’에서 인물이 느낀 감정과 그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유발된 인물의 인식 변화를 작품에 나타난 표현을 활용하여 서술할 것.

5. 다음은 “대명사 ‘누구, 무엇, 어디, 언제’의 의미적 특성을 이해한다.”를 학습 목표로 하는 수업 장면이다.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4점]

교사: 우리말의 대명사 ‘누구, 무엇, 어디, 언제’에는 재미있는 의미적 특성이 있어요. 다음 문장들을 보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a. 저 사람은 누구니?  
b. 오늘 낮에 누구 좀 만나야 해.

(2) 동현아, 너 요즘 누구 좋아하니?

교사: 진희가 (1a)와 (1b)에 나타난 ‘누구’의 의미를 각각 설명해 볼까요?

진희: \_\_\_\_\_ ㉠ \_\_\_\_\_

교사: 잘 말했어요. 그런 사실을 고려하면 (2)가 중의성이 있는 문장임을 알 수 있어요. (2)가 어떤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동수가 그 중의성을 설명해 볼까요?

동수: \_\_\_\_\_ ㉡ \_\_\_\_\_

교사: 맞아요. 이러한 의미적 특성은 ‘누구’뿐 아니라 ‘무엇, 어디, 언제’에도 있어요.

6. 다음은 중세 국어의 ‘ㅇ’에 대한 설명이고 <자료>는 중세 국어의 예이다. <자료>의 (1)에 대해 ㉠의 관점에서는 음운 탈락이 없다고 해석하는 반면 ㉡의 관점에서는 음운 탈락이 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음운론적 해석의 차이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설명하시오. [5점]

중세 국어 후음의 불청불탁자 ‘ㅇ’의 음운론적 해석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오얏<구급간이방 6:29>’의 ‘ㅇ’과 ‘몰애<월인석보 7:72>’의 ‘ㅇ’을 구분하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오얏’의 ‘ㅇ’과 ‘몰애’의 ‘ㅇ’을 같은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두 관점은 모두 ‘오얏’의 ‘ㅇ’에 대해서는 음가가 없는 ‘영(零)’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몰애’의 ‘ㅇ’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에서 비롯된다. 즉 ㉠ 전자는 ‘몰애’의 ‘ㅇ’을  $g > \gamma > h$  변화의 마지막 단계인 유성 후두 마찰음 ‘h’로 해석한다. ‘h’는 이후 음가가 없는 ‘영(零)’으로 변화한다. 반면 ㉡ 후자는 ‘몰애’의 ‘ㅇ’ 역시 ‘오얏’의 ‘ㅇ’과 마찬가지로 음가가 없는 ‘영(零)’으로 해석하고 ‘몰애’를 중세 국어의 일반적인 표기법에 예외적인 표기 규칙을 통해 설명한다.

—<자 료>—

(1) 살어늘, 살오  
(2) 사라(←살-아), 사롬(←살-음)  
(3) 보거늘, 보고  
(4) 네 어머니는 므를 머그면 미븐 브리 드외야

—<작성 방법>—

-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세 국어의 일반적인 표기법을 언급할 것.
- ㉠의 관점에서 (1)에서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이유를 (2)를 참고하여 밝힐 것.
- ㉡의 관점에서 (1)에서 탈락이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이유를 (3)과 비교하여 밝힐 것.
- ㉡의 관점에서 (1)을 위한 표기 규칙을, (2)를 참고하여 기술할 것.

7. 다음은 문학 작품의 심미적 수용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이다. (가), (나)의 미적 특성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가)

저는 아무 집의 노비였어요. 마침 주인댁 아씨와 같은 해에 태어났기에 주인댁에서는 특별히 아씨의 몸종이 되게 했고, 훗날 아씨가 시집갈 때 교전비\*로 삼으려 하셨지요. 그런데 제 나이 겨우 아홉 살 때 주인댁은 세도가에게 멸망당해 토지를 모두 빼앗겼어요. 아씨와 유모만이 살아남아 타향으로 달아나 숨었는데 노비로서 따라간 건 오직 저 하나뿐이었어요.

아씨는 열 살을 갓 넘기자 저와 의논하여 남장을 하고 함께 먼 곳으로 떠나 검술 스승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2년을 찾아 다녀서야 비로소 스승을 얻었어요. 검술을 배운 지 5년이 되니 공중에 몸을 날린 채 오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큰 도시에서 검술 묘기를 선보인 대가로 몇천 냥을 벌여 보검 네 자루를 샀습니다. 그러고는 원수 집으로 가서 검술 재주를 보여 주는 체하며 달빛 아래 검무를 추다가 검을 날려 찌르니 순식간에 수십 명의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원수 집의 안팎 사람들이 모두 붉은 피로 물든 채 죽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하늘을 날아 돌아왔습니다. 아씨는 깨끗이 목욕하고 여자 옷으로 갈아입더니 술과 음식을 마련하고는 선산에 가서 복수했노라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당부했어요.

“나는 아들이 아니라서 세상에 산다 한들 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운명이야. 8년 동안 남장을 하고 천 리를 돌아다녔으니, 비록 남의 손에 몸을 더럽히진 않았지만 이 어찌 처녀의 도리라 할 수 있겠니. 시집가고자 해도 갈 곳이 없고, 설령 갈 곳이 있다 한들 내 마음에 맞는 장부를 어찌 얻을 수 있겠니. 게다가 우리 가문은 외롭기 그지없어 가까운 일가친척 이라곤 없으니 누가 내 혼사를 주관해 주겠니.

나는 지금 여기서 목숨을 끊으려한다. 너는 내 보검 두 자루를 팔아 여기 선산에다 나를 묻어 다오. 죽어서나마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아무 한이 없다.

너는 노비 신분이니 처신하는 도리가 나와는 다르다. 그러니 나를 따라 죽을 필요가 없다. 나를 장사 지내고 난 뒤에 꼭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기이한 선비를 찾아서 그 사람의 아내나 첩이 되어라. 너도 기이한 뜻이 있고 호걸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평범한 사람 앞에서 평생 고분고분 사는 일을 달가워하겠니.”

아씨는 즉시 검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안석경, 「검녀」

\* 교전비(轎前婢): 혼례 때에 신부가 데리고 가던 계집종.

(나)

이때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한지라. 경업의 돌아오는 패문(牌文)이 왔거늘, 자점이 생각하되, ‘경업이 돌아오면 나의 계교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고 상계 주 왈,

“경업은 반신(叛臣)이라. 황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치 아니하사

북경에 잡힌 바가 되어 제 계교를 이루지 못하매 하릴없이 세자·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뒤쫓아오니 이런 대역을 어찌 그저 두리잇고?”

상이 대경 왈,

“무삼 연고로 만고충신(萬古忠臣)을 해하려 하난다?”

하시고 자점을 꾸짖어 물리치시고 참언(讒言)을 신청(信聽)치 아니시니, 자점이 나와 동류와 의논 왈, 경업이 의주까지 오거든 거짓 전교를 전하고 역적으로 잡으려 모계(謀計)하더라.

이때 경업이 데려갔던 격군과 호국 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러는, 홀연 사자가 이르러 임경업을 나래\*하라 하시니 상명(上命)을 전하고 길을 재촉하거늘, 경업이 의괴(疑怪)하나 상명을 위월\*치 못하여 잡혀갈새, 백성 등이 울며 왈,

“우리 장군이 만리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시거늘 무삼 연고로 잡혀가는고?”

하거늘, 경업 왈,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무죄(無罪)히 잡혀가노라.”

하니, 남녀노소 없이 아무 연고인 줄 모르고 슬피하더라.

…(중략)…

차시,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받으며, 천명(天命)이 진(盡)하게 되매 분기대발(憤氣大發)하여 신음하다가 불승개탄(不勝개탄)하다 졸(卒)하니, 시년(時年) 사십팔 세요, 기축(己丑) 구월 이십육일이라.

- 「임장군전」

\* 나래(拿來): 죄인을 잡아 옴.

\* 위월(違越):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김.

<작성 방법>

○ (가)의 ‘아씨’와 (나)의 ‘임경업’이 맞이하는 결말을 중심으로 미적 특성의 공통점을 밝히고, 그것이 구현되는 양상의 차이점을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고려하여 서술할 것.

8. 다음은 “자연관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작품들이고, <보기>는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의 교수·학습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한 편의 글로 논술하시오. [10점]

(가)

구름 빗치 조타 흐나 검기롤 즈로 흐다  
 바람 소리 몯다 흐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출 뉘 업기는 물론인가 흐노라

<제2수>

더우면 곳 뛰고 치우면 님 디거늘  
 술아 너는 언디 눈서리롤 모르는다  
 九泉의 불희 고든 줄을 글로 흐야 아노라

<제4수>

자근 거시 노피 떠서 萬物을 다 비취니  
 밤둥의 光明이 너만 흐니 또 잇느냐  
 보고도 말 아니 흐니 내 변인가 흐노라

<제6수>

- 윤선도, 『오우가』

(나)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푸라타나스,  
 너의 머리는 어느듯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줄을 모르나,  
 푸라타나스,  
 너는 네게 있는것으로 그늘을 느린다\*.

먼 길에 올제,  
 호을로 되어 외로울제,  
 푸라타나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영혼을 불어 넣고 가도 좋으련만,  
 푸라타나스,  
 나는 너와 함께 신(神)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날,  
 푸라타나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窓)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푸라타나스』

\* 느린다: 늘인다.

<보 기>

학습 활동

1. (가)와 (나)에서 자연(물)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인식을 파악해 보자.
  - (1) (가)의 주요 소재들이 인간의 특정한 덕목을 표상하고 있다면, 각각이 어떤 인간상을 찬양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자.
  - (2) (나)의 주요 소재가 시적 화자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파악해 보자.
  - (3) (가)와 (나)에서 자연(물)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인식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비교해 보자.
2. (가)와 (나)에 나타난 자연관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해 보자.

<작성 방법>

- 서론에서는 제시된 학습 목표의 문학 교육적 의의를 밝힐 것.
- <보기>에 제시된 ‘학습 활동’의 모범적인 답을 포함할 것.
-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되, 결론은 생략 가능함.

<수고하셨습니다.>